

글로벌 해양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적 방향

현인택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전 통일부장관)

해양 안보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 국민의 안전과 번영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제주평화연구원은 지난 2024년 10월 11일, 유관기관들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현인택 前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기초연설을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각색하여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 오늘 「글로벌 해양패권경쟁시대, 국가 해양안보 정책과 추진전략」 회의에서 기초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저의 해양전략에 대한 오늘의 기초연설은 지난 2022년 해군대학 세미나에서 한 기초연설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제 기초연설은 그 때 제가 한 「해양세력으로서의 한국의 전략적 재조명」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 제 연설을 찾아보시면 오늘의 것과 연관하여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24년의 글로벌 정치 : 전쟁과 군사적 갈등의 세계

한마디로 2024년의 국제 정치는 '전쟁과 군사적 갈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음. 무엇보다도 갈등하는 국제 정치의 가장 상위에 미.중 헤게모니 경쟁이 있고 이것이 이미 10년째로 접어들고 있음

국제정치 구조의 불안정, 또 그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

- 먼저, 2024년의 글로벌 정치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2024년의 국제정치는 '전쟁과 군사적 갈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등하는 국제정치의 가장 상위에 미.중 헤게모니 경쟁이 있고 이것이 이미 10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이 미.중 헤게모니 경쟁은 국제정치의 구조를 결정하는 바로 근본 원인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국제정치 구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헤게모니의 쇠퇴와 중국의 도전이 지금의 국제정치의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국제정치 구조의 불안정, 또 그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견고한 국제구조 하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만약 국제정치가 미국의 강력한 헤게모니 체제였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러시아의 초기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는 전쟁 전보다 훨씬 약한 국제정치 세력으로 남을 공산이 큼니다. 아마도 러시아가 전쟁 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사태일 것입니다.
- 중동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반이스라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을 포함하여 이란과도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중동의 군사적 충돌은 중동 전역을 불안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더 확전으로 나아가게 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가까운 형태로 간다면 중동의

화약고 폭발이 당분간 가라앉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야

- 동아시아는 어떻습니까? 동아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전쟁은 아직 일어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군사적 갈등의 불씨가 키워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역시 중국의 군사적 행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2027년 대만 침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급증하는 군사력의 상황이 예상롭지 않습니다.
- 중국은 미국과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2023 중국군사력보고서’ (2023 Chinese Military Power Report)에 따르면 중국은 핵능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우주, 반우주 공격능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식 전력도 무서운 속도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해군력 강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축함 등을 그냥 찍어내고 있다는 표현이 알맞을 만큼 급속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소위 4대 발화점(Flash Points) - 즉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 - 모두 중국의 이러한 행보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위협도 예상롭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지금 속도로 계속된다면 아마도 2035년경이면 핵무기 200여기를 보유할 정도로 위협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은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을 밟는 폭주자’의 모습입니다.
-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한국은 군사력 강화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한 지표인 글로벌 군사력(Global Firepower)의 2024 군사력 순위(2024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6위인 영국과 7위인 일본보다 앞선 수치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억제력을 키워온 한국의 현주소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 일본도 최근에 놀라울 정도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방위비를 기존에 비해 무려 2배 인상하는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

*동아시아도 예외는 아님.
지금 전쟁은 아직 일어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군사적 갈등의 불씨가 키워
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임. 가장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역시 중국의 군사적
행보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위협도 예상롭지 않음.
북한의 핵능력은 지금
속도로 계속된다면 아마도
2035년경이면 핵무기
200여기를 보유할 정도로
위협적이 될 것임.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은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을 밟는
폭주자’의 모습임.*

십 년 지켜왔던 비핵 3원칙 등도 다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시아의 안보상황 변화에 대한 나름의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방위정책 변화의 결과는 미·일 안보협력의 질적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태지역의 군사력 균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정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 중국과 남중국해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의 군사력 강화도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동남아 국가들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군사력 강화에 막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도가 새로운 국제정치의 핵심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과 국경분쟁을 경험하고 있고 국제정치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편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오늘 우리가 토론할 글로벌 해양패권 경쟁시대의 주 무대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해양세력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함의가 무엇입니까? 세계는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나고 전쟁과 군사적 갈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상승곡선을 탈 것이고 정점을 향해 계속 악화되어 나갈 것 입니다.

세계사적 전쟁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일촉즉발인 상황임. 유럽, 중동이 전쟁의 참화를 입고 있고, 동아시아도 전운이 감돌고 있음. 세계 어느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군비증강 모드에 돌입해 있음.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 하고 있음.

- 세계사적 전쟁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일촉즉발인 상황입니다. 유럽, 중동이 전쟁의 참화를 입고 있고, 동아시아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군비증강 모드에 돌입해 있습니다.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세계사의 어느 지점과 유사하다고 짚어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국제구조의 불안정성과 헤게모니의 부재, 각 지역 국가들 사이의 갈등 고조라는 주요 요인들을 볼 때 19세기와 20세기 세계대전 원인과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만 볼 때도 지금 세계는 지난 30여년 이래로 가장 불안한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국에의 함의

- 이러한 국제정치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불안정의

소용돌이인 인도-태평양 지역이 바로 우리가 속한 세계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소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지역의 4개 발화점 (Flash Points)이 있는 지역입니다. 즉,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해협, 그리고 남중국해입니다. 여기에 저는 인도-중국 국경 하나를 더해 5개의 발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동시에 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지역입니다. 한국의 20세기는 거의 한반도에 갇혀 있었습시다만, 한국의 21세기는 해양 세력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우리에게 다 열려있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건한 해양세력으로서 성장해야 하고, 따라서 이 지역의 안정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둘째로 이 지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동맹국들이 부챗살 (hub and spokes)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 부챗살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입니다. 이 축이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축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 축도 중요하지만 다른 축들도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축도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만의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가 같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태지역의 해양패권 경쟁에서 허브인 미국이 개입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바퀴살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대만 등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달라진 위상에 놓여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5-6위하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핵국가는 아니지만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한국의 무기는 필리핀, 베트남,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에 다 가 있습니다.
- 2024년 현재 한국 군사력의 실상과 위치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국의 전략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세력균형에도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 셋째, 그렇다면 지역 분쟁에 끼어들자는 것이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어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지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적 긴장완화, 갈등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고, 2차적으로 지역분쟁의

첫째는 이 불안정의 소용돌이인 인도-태평양 지역이 바로 우리가 속한 세계라는 점임.

그런데 동시에 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지역임. 한국의 20세기는 거의 한반도에 갇혀 있었습시다만, 한국의 21세기는 해양세력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도 그러할 것임. 그러므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우리에게 다 열려있고, 열려 있어야 함. 우리는 강건한 해양세력으로서 성장해야 하고, 따라서 이 지역의 안정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임.

그렇다면 지역 분쟁에 끼어들자는 것이냐 반문할 수 있음. 아닙니다. 방어하자는 것임. 이를 방지하자는 것임. 우리의 역지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적 긴장완화, 갈등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한반도와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 하는 길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방향

*첨단화된 해양 전력을 키워
내야 함. 지금까지 목표가
강대국들을 빠르게 따라
가려 하는 패스트 팔로워
(fast follower)였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가장 선두
주자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세워져야 할 것임.*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가질 필요는 없음*

*그러나 우리는 해군력의
어느 한 섹터에서는*

-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양 전력의 강화입니다. 첨단화된 해양 전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목표가 강대국들을 빠르게 따라가려 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였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가장 선두주자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 이게 무슨 꿈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전자,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산업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최첨단의 상업용 선박들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군용함정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방위 분야에서 최첨단 산업을 다 가진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해양세력에서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꿈꾸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글로벌 해양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헤게모니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한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해군력의 어느 한 섹터에서는, 우리에게 걸맞는 형태의 해군력에서는, 세계 최고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형태의 미래형 해양전투체계가 바로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 이러한 한국형 해양전투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한국형 해양전투체계로 무장해서 같이 운용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전혀 망상이 아닐 것입니다.
- 한국의 해양안보는 단순히 해군력 증강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기회와 위협이 공존합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잘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해양안보, 해양경제, 해양기술을 다 아우르는 전략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 글로벌 해양패권 경쟁 시대의 한국의 전략적 방향은 ‘대담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눈높이를 단순히 한반도에 맞추지

말고 좀 더 넓게 멀리 지역적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한국이 해양세력 이라고 정의될 때 이 길은 가야할 길입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환경 변화를 냉정히 평가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조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안보와 국가 위상의 미래를 조명하는 큰 틀에서, 한국의 해양전략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조연설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양패권 경쟁
시대의 한국의 전략적
방향은 '대담하고, 진취적
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함.
한국의 전략적 눈높이를
단순히 한반도에 맞추지
말고 좀 더 넓게 멀리
지역적 수준으로 높여야 함.*

❖ 저자 약력

■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제35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대통령 통일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역임하였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관계, 한일관계 및 한국과 동아시아 관계에 관해서 주요 Track II 회의(민관합동회의)를 기획하고 주도함으로써 한국외교정책의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왔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UCLA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1995년부터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부임 기간 동안 기획예산처장 및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음.

기획 및 감수: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jpi@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